

## 버지니아 울프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전기」\*

손 현 주

1925에 출간된 버지니아 울프의 『일반독자』(*The Common Reader*)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전기」(*The Lives of the Obscure*)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실려 있다.<sup>1)</sup> “이름 없는 사람들의 전기”라는 제목은 그 자체가 장르 전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 19세기에 전성기를 맞아 하나의 문학 장르로 자리매김한 전기문학은 “위대한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그려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뛰어난 점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전기”라는 것은 그 자체로 기존의 장르적 전통에 위배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전기」를 단초삼아 울프의 전기문학에 대한 관심과 실험들에 대해 살펴보고, 울프연구에 있어 전기문학이 갖는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KRF-2007-361-AL0016).

1) “Lives of the Obscure”에서 “life”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 또는 “생애”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로 보통 “전기”라고 번역되는 “biography”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단어이다. 한국말로는 life와 biography를 굳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의상 “전기”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 I. 울프와 전기문학

울프는 전기문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고, 1904년 문예지에 서평을 기고함으로써 처음 글쓰기로 돈을 벌기 시작하여 평생 수많은 책의 서평을 썼다.<sup>2)</sup> 많은 경우 이 서평들은 작가에 대한 짙막한 전기적인 요약과 책에 대한 문학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또 이 중 상당부분이 전기물에 대한 서평이다. 그 결과 울프의 에세이 전집에는 전기적 성격을 띤 에세이들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sup>3)</sup> 크리스티나 로제티(Christina Rossetti)의 전기에 대한 서평에서 울프는 전기문학의 매력과 인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 서술한다.

자 전기물에 대해 말하자면 이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듯, 전기물을 읽는 데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샌더스양(Mary F. Snadars)이 세심하고 훌륭하게 완성한 책(『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생애』 *Life of Christina Rossetti*)의 책장을 펼치자마자 해묵은 환상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여기 과거와 그 거주자들이 기적처럼 마법의 통 안에 밀봉되어 있구나. 우리는 들여다보고 귀 기울이고 또 귀 기울이고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곧 그 작은 형상들이—왜냐면 그들은 실물보다 좀 작으니까요—움직이고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면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패턴으로 그들을 정렬합니다.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어디든 맘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면 우리는 그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온갖 의미를 그들의 말에서 읽어냅니다. 살아생전에는 무엇이든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한다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단 전기 속에 기록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CE4 54)

지금처럼 컴퓨터나 텔레비전, 아니 영화조차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기 전 시대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욕구는 오로지 구술문학과 책을 통해 충족되었었다. 그리고 유명한 인물들의 사생활이 지금처럼 대중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에 그들은 신비에 쌓여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별세계에 사는 사람

2) 울프는 1904년 *Guardian*지에 익명으로 기고를 시작했다. *Essays I*, p.5, n.1 참조.

3) 울프의 에세이 전집으로는 *Collected Essays of Virginia Woolf* 4 vols. edited by Leonard Woolf(1967)와 *The Essays of Virginia Woolf* 6 vols. edited by Andrew McNeillie & Stuart N. Clarke(1989-2012)이 있다.

들로 여겨졌을 것이다. 전기문학은 이들 유명인들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소중한 수단이었고 따라서 상당히 인기있는 문학소비의 한 형태였다.

전기문학은 그리스 로마시대의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 로마 황제 네로나 칼리굴라, 생 제롬 등의 특기할 만한 업적이나 유명한 일화 등에 대한 기록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헌들은 주로 뛰어난 인물의 교훈적 이야기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플루타크(Plutarch)의 『영웅전』(Lives)은 이러한 위대한 인물 이야기를 집대성한 것으로, 이러한 찬양문학과 성인전(hagiographies) 등이 서구 전기문학의 원형이라 볼 수 있다. 성인전은 특히 중세 때까지 번성했는데 포교와 신앙심을 북돋우고, 상업적으로는 성지순례와 성유물 판매를 촉진하는 등의 수단으로 유용했다.

근대적 전기 문학은 개인주의의 발흥과 더불어 16-17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17세기에는 페트라르카(Petrarch), 몽테뉴(Montaigne), 바사리(Vasari) 등의 전기문학이 영어로 번역되어 소개된다. 무슨무슨 전(the Life of ~)이라 불리는 문예물이 다양해짐에 따라 ‘전기’(biography)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고, 하나의 장르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리스 로마의 원시전기문학과 성인전 등의 전통은 근대에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18-19세기까지도 전기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삶”(exemplary life)에 대한 생각은 전기문학에 있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H. Lee 24-30).

빅토리아조에 들어 특히 인기 있었던 전기문학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도덕성과 과묵함(morality and reticence)을 들 수 있는데, 많은 전기들이 가족, 친지, 지인들에 의해 집필되었고, 이들은 전기물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해 내밀한 개인사나 오점이 될 만한 사건들을 들춰내지 않고 감추곤 했다. 점잖음(respectability)을 강조했다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였다. 이후 서구의 전기문학은 북미대륙과 유럽 모두에서 민족주의 국가사상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각광받게 된다. 또한 집단전기물인 전기사전들이 편찬되었다. 영국에서는 1856년 국립초상화화랑(The National Portrait Gallery)이 문을 여는데, 이는 영국의 위대한 또는 중요한 인물들을 한 눈에 항상 볼 수 있는 일종의 시각적 전기사전 역할을 하게 된다.

울프의 전기문학에 대한 관심은 그가 레슬리 스티븐경(Sir Leslie Stephen)의 딸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레슬리 스티븐은 영국 전기문학의 기념비적 집

대성인 『국민전기 사전』(*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이하 DNB)의 초대 편집장으로 1885년부터 1901년까지 거의 모든 에너지를 이 사업에 쏟아 부었다.<sup>4)</sup> 울프가 1882년에 태어났으니 3세부터 19세까지 DNB와 함께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딸의 문학적 재능을 알아본 스티븐은 독서와 학습 진도를 직접 살피며 관리 감독했다. 울프는 하이드 파크 게이트(Hyde Park Gate)에 있던 5층 집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은 서가에서 아버지가 직접 읽을 책을 골라주셨던 것을 회고한다. 이 때 울프가 읽었던 책들 중에는 역사와 전기문학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에도 울프의 독서목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sup>5)</sup> 이십대 이후 평생에 걸쳐 문예지 등에 발표한 서평과 문학에세이를 통해 울프는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여성들, 특히 여성문인들을 소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1790년에 가정교사로 일했던 셀리나 트리머(Selina Trimmer),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원고를 편집한 그의 딸 사라 콜리지(Sara Coleridge) 등 역사와 문학사의 뒀안길에서 잊혀진 여성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뉴캐슬 공작 부인인 마거렛 카벤디시(Margaret Cavendish, Duchess of Newcastle), 아프라 벤(Aphra Behn), 패니 버니(Fanny Burney),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Elizabeth Barrett Browning)과 같은 여성문인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울프는 또한 「새로운 전기문학」(“The New Biography”)과 「전기문학예술」(“The Art of Biography”)이라는 에세이를 통해 전기문학에 대한 문학론을 개진하였고, 이는 이후 전기문학 비평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플러시』(*Flush*)와 『올란도』(*Orlando*)와 같은 작품에 “전기”라는 부제를 달아 허구적 전기를 발표하여 전기문학 자체를 패러디하고 전복적인 실험을 시도하였고, 블룸즈버리 그룹의 일원이었던 로저 프라이(Roger Fry)의 전기를 집필하기도 했다. 마이클 벤틴(Micahel Benton)은 전기문학 관심의 울프의 지적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등대로』(*To the Lighthouse*)에서는 간접적이지만 심도있게, 『올란도』와 『플러시』에서는 유머러스하게, 에세이와 『로저 프라이』에서는 직접적으로, 편

4) DNB는 1900년에 63권으로 초판이 출간되었고, 이후 20세기 전반에 걸쳐 여러 번 개정을 거쳐, 2004년에 *Oxford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로 인터넷판이 함께 출간되었다.

5) Brenda R. Silver, *Virginia Woolf's Reading Notebooks* (Princeton: Princeton UP, 1983) 참조.

지와 일기 여기저기서, 그리고 『존재의 순간들』(*Moments of Being*)이라는 제목으로 묶은 자서전적 글들에서는 감동적으로, 전기문학은 울프의 전체 저작에 깊이 스며있다. (7)

그리고 이러한 울프의 글쓰기 과정을 허마이오니 리(Hermione Lee)는 “‘생애-저술’(life-writing)과정에 대한 진화하는 내러티브”라고 칭한다(xiii; Benton 7, 재인용). 이렇게 울프가 보여주는 전기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가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이다. 전기문학은 문학과 역사서술 그 경계에 존재해 왔다. 울프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전기”의 가치는 역사가 간과한 부분, 즉 “인류 역사의 어둡고 희미한 장 밝혀주는”(“the light it throws upon this dark and obscure chapter of human history”) 데에 있다고 생각했다(CE4 61). 하지만 역사서술은 지배계층과 가난한 민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사이에 위치하는 평범한 중간 계층의 인물들의 삶의 모습은 많은 부분 간과되어 왔고, 특히 중산층 여성의 삶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CE4 61). 그래서 그가 역사의 어둠 속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민중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 중산층 사람들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 II.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

「이름 없는 사람들의 전기」는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 「테일러즈가 사람들과 엡저워스가 사람들」(“Taylors and Edgerworths”)과 2부 「리티셔 필킹턴」(“Laetitia Pilkington”)이다. (여기서는 지면상 1부만 다루기로 한다.) 이 글에서 울프는 지방의 오래된 작은 도서관 서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골 목사나 지역 인사들의 자서전 일기 등의 책들로부터 수집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고 있다. 1부의 제목은 비록 테일러가 사람들과 엡저워스가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1800년 경 콜체스터(Colechester)에 모여살았던 스트럿츠가 사람들(the Strutts), 힐씨 집안 사람들(the Hills), 스테이플턴가 사람들(the Stapletones) 등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흩어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아주 간결하게 몇몇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벤 스

트러츠는 묘하게도 딸들에게는 고기를 주지 않아서 스트러츠가의 딸들은 모두 폐렴으로 죽었다든가, 스테이플턴가 사람들은 시적인 성향이 있어 밤거리를 거닐며 달밤에 시를 읽었다든가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 중 앤은 문필업에 종사하지만 (아마도 여자였기 때문에)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고 훨씬 집안 사람들이 가장 불운했다는 것. 특히 활기찬 미모의 패니 힐(Fanny Hil)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M 선장과 결혼하여 자신이 물려받은 가산을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콜체스터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은 “다수의 군상이며 방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처럼 개개인이 독립되어 있기보다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서가의 책들처럼) 책 표지와 첫 페이지, 첫 장들이 서로 구분할 수 없이 엉키어, 셀 수 없이 많은 페이지들이 연이어지는 세월로 녹아들고, 우리는 편안히 기대앉아 수많은 삶의 얽은 안개 같은 실체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이다 (CE4 122). 이 밖에도 엘먼씨(Mr. Elman), 비폰양(Miss Biffen), 프렌드양(Miss Frennd), 다이어 부인(Mrs. Dyer) 등이 등장하고 마침내 소제목의 주인공인 리처드 로벨 엡저워스(Richard Lovell Edgerworth)가 등장한다. 정력적이고 만사에 나서지만 따분하기 그지없는 인물인 그는 쓸모없는 발명에 모든 것을 바친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겐 믿을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사건들이 담겨있다. 아내의 할머니가 사라져버린 사건이 있었고, 마침내 엡저워스씨가 그 백발의 노부인을 찾아냈을 때 몇 가지 믿기지 않는 사실들이 밝혀진다. 즉, 부인은 남모르는 천주교 신자였고, 결투로 자기 남편을 죽인 남자와 결혼해 살아야 했던 세월에 대해 속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그가 숲 속의 성에 마비된 채 갇혀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만난 일 등 로맨틱한 모험담들이 있다. 하지만 그는 집안의 폭군이었고, 첫 부인을 무척이나 고통스럽게 했으며, 쓸데없는 물건들을 발명하느라 집안 경제를 등한시 했다는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의 부인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의 행간을 통해 짐작해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울프는 특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엡저워스 부인의 고통을 헤아려 보기도 한다.

이런 류의 이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울프의 글 여기저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울프의 시골집인 로드멜(Rodmell)의 몽크스하우스(Monkshouse) 인근 목사의 누이인 노부인을 모델로 한 「과부와 카나리아: 실제 이야기」(“The Widow and the Parrot: A True Story”), 울프의 일기에 흔히 기록되는 마을 사람들 이야기,

이들을 발전시켜 쓴 스케치로, 마을에 돌아온 젊은 수부가 밤사이 뜻밖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세 개의 그림」(“Three Pictures”)이 있고, 연못에 몸을 던진 젊은 여인의 전설이 소설 『막간』(*Between the Acts*)에서 릴리연못에 얽힌 이야기로 변형되어 들어가 있기도 하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왜 굳이 울프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려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의 이야기를 “집단전기” 형식으로 써야한다고 생각했는가?

울프가 말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 이들은 귀족이나 상류층에 속하지 않지만 노동자 농민 등의 기층민중도 아니다. 이들은 소위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뛰어난 업적을 남기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살아간 사람들이다. 한 예로 「두 여인」(“Two Women”)이라는 에세이를 들 수 있다. 「두 여인」은 옥스퍼드에 영국 최초의 여자대학을 설립한 에밀리 데이비스(Emily Davis)와 그녀를 후원해준 귀부인 어거스터 스탠리 여사(Lady Augusta Stanley)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 외에 여성운동에 연관된 사람들을 함께 등장시킨다. 에밀리 데이비스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로 “전기”의 대상이 되기에 손색이 없어 보이지만, 울프의 당대에는 “위대한 남성들”(great men)의 전유물이었던 전기문학의 소재가 되기에는 낮은 인물이었던 것 같다. 그녀는 극히 예외적으로 전기문학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 즉 귀족이나 여왕이 아니었다. 울프에 따르면 “위대한 남성들” 뒤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양육해 온 수많은 이름 없는 중산층 여성들의 삶은 글로 기록되지 않았고, 역사는 상류층과 가난한 민중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뿐, 중산층 여성들의 삶의 여정은 간과해 왔다. 울프가 글로 담아내어 전달하고자 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울프 자신이 속한 중산층, 특히 그 계층에 속한 여성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여 역사의 어두운 구석에서부터 끌어내는 것은 울프 자신의 뿌리를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울프는 이제 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한다. 이들의 삶을 담아내는 작업은 자신의 삶을 조명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적인 흐름 속에 자리매김하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울프는 단편소설과 문학에세이, 나아가 자신의 글쓰기 전반에 걸쳐 이 작업을 수행하고 실험했다. 특히 여성작가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작업에 힘써, 아프리카 벤과 페니 버니 등 초기 선구자적인 여성작가들과, 공작부인으로써 글을 써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마가렛 카벤디시(Margaret Cavendish, Duchess of

Newcastle), 제인 오스틴(Jane Austen), 조지 엘리엇(George Elliot), 브론테 자매(the Brontës),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 캐더린 맨스필드(Catherine Mansfield) 등의 여성작가 시인들의 이야기를 문학지에 기고하고 『일반 독자』시리즈, 『나방의 죽음』(*Death of the Moth*) 등의 에세이집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평생에 걸쳐 진행했다. 울프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안 마틴양의 일기”(The Journal of Mistress Joan Martyn)같은 단편으로,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에서는 주디스 셰익스피어(Judith Shakespeare)라는 셰익스피어의 가상의 여동생의 비극적 생애를 통해 실제보다 더 실감나는 여성의 지난한 삶의 모습 그려내기도 했다. 이 같은 가상의 여성작가 지망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울프는 실제 우리에게 알려진 여성작가들이 탄생하기까지 밑거름이 되었던 진정으로 “이름 없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내고자 했다.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이다. 주디스 셰익스피어나 조안 마틴 처럼 허구의 인물을 창조하는 것은 작가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인 반면, 울프가 전기문학론에서 고심하는 것은 검증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서술이다. 이는 전기문학과 역사서술 모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울프는 이전 빅토리아조의 전기서술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새로운 전기문학”을 모색했다.

### III. “새로운 전기문학”을 향하여

울프와 더불어 리튼 스트레치(Lytton Strachey)는 전 시대의 전기문학이 전기문학의 가장 핵심인 “개인성의 진실한 전달”(truthful transmission of personality)에 실패했다고 보았다(CE4 229). 울프와 스트레치는 둘 다 장례식과 죽음의 메타포를 빌어 빅토리아조 전기문학이 그려내는 인물은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라 “장례행렬”(the cortege of the undertaker), 또는 그 행렬에 실려 가는 길보기만 비슷하게 닮은 “밀랍인형들”(effigies)과 같다(Strachey 1; CE4 222)고 묘사한다. 이러한 빅토리아조의 전기문학에 대한 비판은 시드니 리(Sidney Lee)의 『전기문학의 원리』(*Principles of Biography*)(1901)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드니 리는 레슬리 스티븐의 뒤를 이어 DNB의 총편집장이 된 인물로,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작업을 위해



DNB에 포함될 대상을 선별하는 데 깊은 관심이 있었다. 전기문학이 인간성에 대한 탐구일 때, 이러한 표본이 될 인간성을 대표해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인간성을 측정,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H. Lee 60). 그는 “존재감이 없거나 평범한 인물의 전기는 제아무리 잘 집필되었다 하더라도 전기문학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60). 이는 스트레치가 『결출한 빅토리아조 인물들』(*Eminent Victorians*)(1917)이라는 당시로는 파격적인 집단전기를 발표하기 불과 육년 전이다. 스트레치는 빅토리아 시대 전기문학에서 추앙되었던 대표적인 인물 4명의 전기를 다시 썼고, 여기서 그는 풍자적인 필치로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적인 면모들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좀 더 현실적이고 약점을 가진 실제로 살았을 법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이는 기존 전기문학의 기조에 도전하는 전복적이고 파격적인 시도였고, 스트레치는 이 작품으로 영국의 대표적인 전기작가들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울프와 스트레치는 빅토리아조 전기문학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이른바 “새로운 전기문학”을 제시한다. 1927년에 쓴 「새로운 전기문학」이라는 에세이에서 울프는 해럴드 니콜슨(Harold Nicolson)의 『어떤 사람들』(*Some People*)을 시드니 리로 대표되는 빅토리아조 전기문학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로 보았다.<sup>6)</sup> 울프의 이 같은 논조는 1917년에 출간된 『결출한 빅토리아조 인물들』의 서문에서 스트레치가 빅토리아조 전기문학에 가하는 비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들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자료들을 덩어리째 늘어놓고, 느슨한 스타일에, 맥 빠지는 찬양조로, 기막힐 정도로 선별작업도 없고, 거리도 두지 않고, 디자인도 없이 글을 쓴다”(2). 스트레치는 전기문학의 필수요소로 서술 대상과의 거리를 중시했다. 서술대상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면 필요한 단순화 명료화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1). 그 다음으로는 서술대상을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의 목적은 대상을 설명이 아니라 “예시”(illustrate)임을 밝힌다(1).

이 같은 주장은 울프의 것과 유사한데, 기실 울프와 스트레치의 기존 전기문

6) Harold Nicolson, *Some People* (London: Constable, 1927), reprinted with an author's note in 1951 (London: Folio Society, 1951), and in 1996 with an introduction by Nigel Nicolson (London: Constable, 1996).

학에 대한 비판은 그들의 모더니스트적인 문학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 울프는 소설에서 사건중심의 전개대신 몇 가지 에피소드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나도록 하는 새로운 기법을 실험했다. 울프가 그려내는 인물은 연대기적 사건 속에서가 아니라 사소해 보일지라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개인적인 경험의 강렬함과 깊이를 통해 독자에게 다가온다. 울프가 생각하는 전기문학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울프의 소설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허구로 구성된 전기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등대로』와 『제이콥의 방』(*Jacob's Room*)에서 울프는 램지 부인(Mrs. Ramsey)과 제이콥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심하고 실험했다. 램지부인의 경우 “오십 쌍의 눈”으로도 모두 볼 수 없는 섬세하고 입체적인 부인의 모습을 제임스와 릴리의 시선을 통해, 가족과 손님들간의 관계 속에서 조명하고, 나아가 기억 속의 모습으로 재구성해내고 있다(TLH 303). 『제이콥의 방』에서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제이콥이 아니라 그가 몸담은 방을 통해 제이콥의 부재를 전달해 준다. 하여 제이콥을 직접 묘사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눈에 비친 제이콥을 보여주려 하지만, 결국 그 누구도 제이콥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램지 부인처럼 제이콥도 죽음을 통해 비워진 후 기억으로 재구성되기를 기다린다. 이러한 극단적인 실험에 이어 울프는 실제로 『플러시』와 『올란도』에 ‘전기’라는 부제를 붙여 출판하기도 했다. 이것은 전기문학에 대한 패러디이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전기를 쓰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해 본 것이기도 하다. 이후 『파도』(*The Waves*)에서는 여섯 친구들의 삶이 얽힌 일종의 집단전기 같은 시도를 보여주고, 마지막 작품인 『막간』에서는 한 마을 사람들이 축제의 마당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돌아보게 하는 역사성을 띤 서사를 보여준다.

하지만 허구의 인물묘사와 실제 전기 서술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울프는 『로저 프라이』를 쓰는 작업을 통해 이 문제를 절감하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울프가 표방하는 입체적인 인물묘사가 외적인 사건보다 개인의 내적 경험에 기반을 둔 개인적 진실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현실은 전기작가가 검증가능한 사실들을 근거로 인물을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베넷씨와 브라운 부인」(“Mr. Bennett and Mrs. Brown”)이나 「현대소설」(“Modern Fiction”)등의 에세이에서 울프가 피력하는 인물론은 그가 생각하는 전기문학의 인물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울프가 피력하는 현대소설의 핵심은 외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삶이 “진정한 삶”(real life)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내적 경험은 검증 가능한 사실들을 통해 전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인간의 내적 삶, 즉 스쳐지나가는 단상들과 감정들을 추적한 좋은 예가 「벽에 난 자국」(“The Mark on the Wall”)이다. 화자는 벽에 있는 작은 점을 보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한다. 그 작은 점은 어제까지는 있는 줄 몰랐던 것인데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 한다. 하지만 화자는 가까이 가서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 낯선 점을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연상과 추측과 기억이 교차하는 시발점으로 삼는다. 이 경우 생각의 대상이 벽에 있는 점이라는 현상, 또는 물체이지만, 만일 그 대상이 인물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쓰여진 소설이 『제이콥의 방』이다. 제이콥을 대상으로 어머니인 플렌더즈 부인(Mrs Flanders), 기차 안에서 그를 관찰하는 노먼 부인(Mrs Norman), 거리의 여자 플로린다(Florinda) 등이 등장한다. 플렌더즈 부인은 바다가에 놀러나가 숨어버린 제이콥을 찾아 나섰다가 “저 말썽장이 꼬마녀석이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질 않네”(Where is that tiresome little boy? I don't see him, 3)라고 말한다. 케임브리지로 가는 열차 안에서 맞은 편에 앉아 있는 노먼 부인에게 그는 험령한 양말을 신고 초라한 타이를 매고 눈을 내리깔고 신문을 읽고 있는 낯선 젊은이일 뿐 아무리 이모저모 뜯어보아도 그를 꿰뚫어 볼 수는 없다. 이에 울프는 “아무도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열차 안에 낯선 젊은이 건너편에 앉은 나이 지긋한 부인을 내버려 두자. 그들은 온갖 것을 다 보지만 그들은 전체를 보고, 그들 자신을 본다”고 결론을 내린다(36). 그렇다면 『제이콥의 방』은 제이콥이라는 인물의 삶을 그려낸 것일까? 아니면 제이콥을 매개로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전달하는 것인가?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전기를 쓴다면, 그리고 그 전기가 울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 인물의 개성을 진실되게 전달해야한다면, 그리고 그 개성이란 그의 내면적 삶이라면, 과연 그러한 전기를 쓰는 것이 가능할까? 내면의 삶을 검증 가능한 사실들에 입각해 전달하는 것이 얼마만큼 가능한가? 한 인물의 내면은 그가 일기나 서신 또는 대화나 표정, 작품 등을 통해 드러낸 부분 이상은 알 수가 없다. 언어로 표출된 것이 아닌 표정이나 행동, 작품 등을 그 근거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전기작가의 ‘해석’이 그에 수반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진실되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 진실성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은 사실 허구의 자유를 누

리는 소설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또는 존재했던 인물의 전기글 쓰는 경우, 그리고 그 인물의 내적 경험을 서술해야 하는 경우, 추측과 허구적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임무이다. 울프의 전기문학론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빅토리아조의 전기문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새로운 전기문학”을 표방하는 울프나 스트레치의 새로운 실험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프로이트를 기점으로 출발한 인간 내면への 관심이 모더니즘 문학의 문학적 관심사의 핵심에 자리 잡으면서, 전기문학의 방향성을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잡았을 때, 전기문학은 실현 불가능한 장르처럼 보인다. 엘레나 팔티에리(Elena Gualtieri)는 울프의 전기문학관의 변화를 지적한다. 1927년 “새로운 전기문학”에서 사실과 허구의 조화, 울프의 메타포를 빌면 “화강석과 무지개”(granite and rainbow)의 조화를 지향했지만, 1939년에 쓴 「전기문학예술」에서는 전기문학을 “예술”(art)이 아닌 “기능작품”(craft)으로 분류하고 “사실의 진실”과 “허구의 진실”을 구별한다. 하여 예술이 아니라 기능 작품인 전기문학은 검증 가능한 사실에 의거해야 한다는 한계를 넘어서기 보다는 존중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CE4 227). 한계를 유린하는 것은 예술작품 즉 문학이 할 일로 남겨둔다. 팔티에리는 울프의 이같은 태도가 그가 견지했던 이전의 전기문학론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올란드』와 『자기만의 방』에서 보여주었던 사실에 충실한 객관적 역사서술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도 얼마간 상충된다고 보았다(356). 그렇다면 울프의 전기문학관의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

1937년부터 39년까지 2년간 울프는 오랜 지기였던 미술사가인 로저 프라이의 전기 집필에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울프는 자신이 표방했던 “개인성의 진솔한 전달”을 위해 프라이라는 인물을 다면적 입체적으로 서술하는데 고심한다. 이를 위해 울프는 주로 프라이 자신의 서신과 일기, 저술 등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적 작가가 아니라 드러난 것 이상은 알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입장을 고수한다. 또한 가까이서 프라이의 삶을 지켜보았던 지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울프는 “선택과 연결”이라는 전기작가의 권리를 가지고 대중들에게 공개할 부분과 공개하지 않을 부분을 선별한다. 특히 언니 바네사 벨(Vanessa Bell)과 프라이의 연애사건은 언급하지 않고 덮어두기로 한다. 그 결과물인 『로저 프라이』는 울프가 「새로운 전기문학」에서 목표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있게 된다. 그러한 경험이

반영된 「전기문학의 예술」에서 울프는 “허구”와 “사실”의 분리가 전기문학의 기반이라 주장한다.

전기문학은 “사실”에 충실해야하고 사실들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어내기 위해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지만 ‘허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이도저도 아닌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변한다(CE4 229). 하지만 이러한 “사실”과 “허구”의 이분법은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전시대의 전기문학적 전통에 기초한 것으로, “새로운 전기문학”을 추구하면서 과거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새로운 전기문학”에서 울프가 그 예로 칭찬했던 니콜슨의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인물에 기초하기는 했지만 상상력으로 구성된 ‘허구’에 더 가까운 저작이다. 이에 비하면 허구와 사실의 엄격한 분리를 표방하는 “전기문학 예술”의 논의는 울프의 초창기 전기문학론을 근본적으로 수정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울프가 추구했던 새로운 전기는 교훈적인 면을 강조한 영웅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로 느껴질 수 있는 입체적 인물을 그려내는 것이었지만, 로저 프라이라는 인물을 “허구”를 배제한 단단한 “사실들”에 기초해 마치 “성운”(stardust)같은 인간성(personality)을 전달하는 일은 거의 수행 불가능한 과업이었다(CE4 122, 229). 울프는 이에 대해 “소설가는 자유롭지만” “전기작가는 사실에 얽매여 있다”고 한탄했다(CE4 225).

『로저 프라이』 집필 작업은 울프를 거의 소진시켰고, 완성된 전기에 대해 울프 자신은 실패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 작품은 재판에 재판을 거듭하며 팔려나갔고, 울프는 보스웰(James Boswell)의 존슨(Samuel Johnson)이 우리가 아는 존슨의 모습을 구성해 놓은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쓴 로저 프라이를 로저 프라이로 기억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기에 이른다.

이 순간 나와 로저와의 관계는 얼마나 묘한 것인지. 나는 그에게 사후에 일종의 모습을 선사했다. 그가 그렇게 생겼던가? 이 순간 아주 깊이 그의 존재를 실감한다. 마치 아주 친밀하게 그와 연결되어 있는 듯이. 마치 우리가 함께 이 같은 그의 이미지를 탄생시킨 것마냥. 우리에게서 태어난 자식으로. 하지만 그는 그걸 바꿀 힘이 없다. 그리고 한동안 이것이 그를 대표하게 될 것이다. (DS 305: 25 July 1940)

흥미롭게도 『로저 프라이』를 집필하며 “사실”에 기반한 전기 서술에 힘겨워하던

울프는 이 작업과 상반되는 작품을 구상하고 작업하면서 정신적 긴장을 완화하려 하였다. 그 작품이 『막간』이다. 사실에 얽매인 전기작가의 임무에서 벗어나 “마음껏 실험적”인 모드로 몰두했던 작품으로 전기문학적인 실험에서 보면 두 작품은 서로 양 극단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로저에게서 잠시 휴식하며 하루 이틀 포인츠 홀(*Points Hall* 후에 『막간』이 됨)에 시간을 보내자. [...] 삼 개월 간격으로 쓰면서 이 책이 과연 완성될지 의심스럽지만. 하지만 나는 마음껏 실험하고 싶은 심정이다. (D5 228: 30 July 1939)

이처럼 전기작가의 검증 가능한 사실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실험에 나선 울프가 써내려간 작품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의 잠시의 평화기에 런던에서 떨어진 시골 마을의 포인츠 홀이라는 저택에서 벌어지는 야외극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유럽으로 보면 전대미문의 서구문명의 야만성과 파괴력을 경험하고 이전시대의 문명에 종말을 고하는 그러한 방점을 찍는 시기에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는 작업으로, 울프는 중산층 집안의 시골저택에 기거하는 아이저(*Isa*)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그녀의 가족들과 마을사람들, 그리고 마당극 공연을 보러 런던에서 방문한 손님들의 삶을 엮어 거기에 예술가와 신부님, 자연의 힘인 소와 소나기, 이 전원적 풍경에 유럽의 전쟁 현실을 일깨우는 비행기의 소음까지를 엮어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를 교차시키고, 집단과 개인의 역학관계, 남과 여, 인간과 자연, 폭력과 생장, 역사와 전설, 현실과 예술의 역동성을 아우르고 있다. 이 작품은 문명 이전에 공룡이 어슬렁거리던 늪지에서 로마인들이 도로를 건설하고 앵글로 색슨의 영국이 정착되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성을 현재라는 시점에서 수렴하여, 전쟁의 목전에서 폭력과 파괴에 맞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짚어보는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에 가장 가까운 울프의 저작이라 할 수 있다.

#### IV. 전기문학과 소설의 접점을 찾아서: 집단전기와 『막간』

울프의 “이름없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획기적인 것이라기보다 사실

전시대의 다양한 전기문학적 실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빅토리아시대의 전기 문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인기는 유명인사들에 대한 영웅찬양적 전기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있게 한 배경으로서의 이름없는 사람들의 삶 이야기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했다. 울프는 빅토리아 조 전기문학의 경직되고 남성중심적인 측면을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19세기에는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물들의 삶을 기록한 이야기, ~전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문학들이 출간되었다. 『고매한 여성들의 생애 이야기』(*Stories of the Lives of Noble Women*)(1883), 『자수성가 인물전』(*Self-help*)(1859), 『기술자들의 전기』(*Lives of the Engineers*)(1861-2) 등이 그 예들이다. 이러한 전기물은 비슷한 부류로 분류된 인물들의 짧은 전기를 한데 묶어 출간한 형태로 일종의 집단전기물이라 할 수 있다. 울프의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의 DNB작업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는데, DNB는 자체가 “집단전기”(collective biography, prosopography)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기의 한 형태이다. DNB는 엄청난 규모 사업으로 당시의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저작이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뛰어난 인물들을 망라하자는 원래 취지에 대해 스티븐은 뛰어난 인물들뿐만 아니라 소위 2류(minor)급 인물들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 그에 따라 해군선장, 시골 목사, 교사, 상인, 운동선수 등과 같은 인물들의 전기도 포함되게 되었다. 이들의 전기는 추모글, 비망록, 서문, 서신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쓰였다(Benton 254). 이러한 전기 집필의 과정 속에서 울프는 성장했고 자연스럽게 전기문학에 대한 안목을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로라 마커스(Laura Marcus)는 울프의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가 스티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일반적으로 울프가 부친의 전기서술 방식을 완전히 거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비추어 보면 놀라운 일”(98)이라고 말한다. 비록 울프의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라는 아이디어가 빅토리아 전기서술 형태에서 발전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강조점은 같지 않다. 빅토리아 전기문학에서 “숨겨진 인물들의 삶”(hidden lives)에 대한 관심은 위대한 인물들의 배경으로서, 그리고 “일상적 삶의 매력”을 찬양하는 데에 주로 그 주안점이 있었다. 반면, 울프의 경우, “이름없는 사람들”의 삶, 특히 기록되지 않은 여성들의 삶은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인식과 조명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Atkinson 254-256). 줄리엣 앳킨슨(Juliette Atkinson)은 울프가 말하는 “이름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지배계층에서 배제된 사람들로, 『삼 기니』(*Three Guineas*)에서 “아웃사이

더”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257). 하지만 울프의 전기문학론과 관련해서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가 중요한 것은 “이름없음”이라는 특징이 주는 자유로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울프가 “전기작가는 엮매여 있는 반면, 소설가는 자유롭다”고 개탄했을 때, 엮매인 전기작가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법은 그들이 남겨놓은 자서전적인 글들, 즉 일기나 서신, 또는 기타 단편적 기록들에 기초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름없는 사람들의 생애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사실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있다 해도 이들의 이야기는 독립적으로 기술하기에는 그 의의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사실 울프는 그러한 의구심을 거듭 표출하고 있다. 안나 씨워드(Anna Seward)의 전기에 대한 서평, 「백조와 친구들」(“A Swan and Her Friends”)에서 울프는 “왜 씨워드 양의 전기가 필요한가?”라고 묻는다(*Essays 1* 151). 또한 「별난사람들」(“The Eccentrics”)이라는 에세이에서 울프는 “대체 무슨 변덕으로 우리는 모퉁이를 들고 돌아 훌륭한 인물들에 바쳐진 많은 훌륭한 책들의 지평아래에서 그들(평범한 사람들 또는 그들의 전기, 역주)을 찾아가?”하고 의구심을 내비친다(*Essays 3* 38). 이런 작은 인물들의 전기는 개인으로 써가 아니라 집단의 일원으로써, 그 집단의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써 더 적합할 수 있다. 더욱이 검증가능한 자료가 많지 않은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들의 생애를 그려내는 것은 그 한사람 한사람이 개별적인 인물로서보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그려냄으로써 시대상과 사회상의 입체적 전달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는 역사와 전기, 문학이 만나 어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장이 된다. 이름없는 사람들의 생애이야기를 엮는 일은 울프가 전기작가의 특권인 “선택과 결합”(the power of selection and relation)을 통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로저 프라이에서 고심했던 “사실”에 기반한 개인의 “개성”을 창조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집단적인 상호보완을 통해 시대적 분분위기를 전달하는 작업은 소설가적인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훨씬 많아진다. 울프의 소설작품 중 『막간』이 이러한 집단전기의 실험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개인과 집단의 역동적 관계가 모색되고, “집단전기”로서의 이름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외적 사건과 내면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과 어우러져 울프가 살아간 시대의 자화상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아내고 있다.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를 “집단전기”로 서술하려 한 울프의 시도는 울프가 살았던 당시의 역사학계의 움직임과 연계되어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인 역사학이 드러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역사서술 방법이 “집단전기”(prosopography)적 역사서술이다. 집단전기적 역사연구와 서술은 영국사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는데, 이는 18세기 이후 20세기 초까지 영국에서 집적되어왔던 방대한 양의 전기적 자료들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집단전기 역사학의 대표적 학자인 루이스 네이미어(Lewis Bernstein Namier)는 18세기 영국하원의원들의 전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치구조」(*The Structure of Politics at the Accession of George III*, 1929)를 저술하여 새로운 역사서술의 한 획을 그었다. 「정치구조」는 일종의 집단전기 사전과 유사한 형태의 서술이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미국개헌의회 의원들의 경제적 동기를 파헤치는 역작으로 찰스 베어드(Charles Beard)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The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917)와 로널드 사임(Ronald Syme)의 로마혁명(*The Roman Revolution*, 1939) 등이 있다.<sup>7)</sup> 이들의 서술에는 각기 특징적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한 두명의 영웅이나 위인이 아니라, 특정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 다수의 전기적 자료를 바탕으로 그 조직의 특성과 사고방식, 체제 등을 읽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울프의 생각과 유사하다. 울프의 전기문학과 자서전에 대한 관심은 그의 역사의식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 울프는 평생 일기를 기록했고, 기록의 중요한 목적이 만년에 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서전과 자신이 살아간 시대의 역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 근거로 십 년의 간격을 둔 두 편의 일기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생각이 울프에게 있어 얼마나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언젠가는 마치 한 폭의 역사화처럼, 내 친구들 모두의 대략적 모습을 여기(일기)에 그려볼 것이다. [...] 이 아이디어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어찌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시대의 회고록을 쓰는 방법일지 모르겠다. (D3 157, 20 Sep.1927)

[시빌 코울팩스(Sybil Colefax)에게서 온 편지]를 회고록 자료로 베껴놓는다.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역사를 쓰는 데 소용될 원재료로. 또한 점심 전 5분을

7) 나종일, 「집단전기학」 참조.

보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D5 61, 24 Feb. 1937)

울프에게 있어 만년에 쓸 회고록(또는 자서전)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살아간 시대의 모습을 총괄하는 커다란 과업이었다. 이 목적을 위해 일기에 편지와 신문기사들을 베껴놓기도 하고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나 포스터(E. M. Forster), 엘리엇(T. S. Eliot)같이 저명한 지인들과의 대화내용을 기록해 놓기도 했다. 이러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살아간 격동의 시대의 모습을 그려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미완인 채로 남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간 시대의 모습을 그려낸 허구적 집단전기로서 앞서 언급한 소설 『막간』을 남겼다. 그리고 『막간』은 저명한 인물들이 등장했을 울프의 실제 회고록과는 달리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에 더욱 가까운 작품이 되었다.

울프는 모더니즘 문학의 격동의 한가운데에서 과거의 성취와 미래의 비전 사이에서 새로운 글쓰기를 끊임없이 모색했고 그의 소설관과 전기문학에 대한 견해는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유기적인 실험적 노력의 다른 측면들일 뿐이다. 울프의 글쓰기는 기존의 장르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나간다. 허구적 전기를 통한 인물구성, 역사의 이면을 탐구하려는 역사의식, 여성의 삶과 경험을 새로이 조명하려는 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역사적 시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자서전적인 노력 등 울프의 글쓰기는 이 모든 다양한 시도들이 역동적으로 어우러지는 장이다. 하여 울프가 추구했던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는 전기문학과 소설, 그리고 역사가 만나는 지점을 마련해 준다.

(서울대)

## 인용문헌

- 나종일. 「집단전기학」. 『서양사연구』 7 (1985): 1-44.
- Atkinson, Juliette. *Victorian Biography Reconsidered*. Oxford: Oxford UP, 2010.
- Benton, Michael. *Literary Biography: An Introduction*. Chichester: Wiley-Blackwell, 2009.
- Gualtieri, Elena. “The Impossible Art: Virginia Woolf on Modern Biography.” *Cambridge Quarterly* 29 (2000): 329-361.
- Lee, Hermione. “Introduction.” *Moments of Being: Autobiographical Writings*. Ed. J. Schulkind. London: Pimlico.
- \_\_\_\_\_. *Biograph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P, 2009.
- Lee, Sidney. *Principles of Biography*. Cambridge: Cambridge UP, 1911.
- Marcus, Laura. *Auto/biographical discourses: Theory, criticism, practice*. Manchester: Manchester UP, 1994.
- \_\_\_\_\_. *Virginia Woolf*. Plymouth: Northcole House, 1997.
- Monk, Ray. “This Fictitious Life: Virginia Woolf on Biography, Reality, and Character.” *Philosophy and Literature* 31.1 (2007): 1-40.
- Silver, Brenda R. *Virginia Woolf's Reading Notebooks*. Princeton: Princeton UP, 1983.
- Strachey, Lytton. *Eminent Victorians*. 1918. New York: Oxford, 2003.
- Woolf, Virginia. “The Art of Biography”(1939). *Collected Essays*. Vol.4. London: Chatto & Windus, 1966-7. 221-228.
- \_\_\_\_\_. “The Eccentrics.” *The Essays of Virginia Woolf. Vol.III*. Ed. Andrew McNiellie. London: Hogarth, 1988. 38-41.
- \_\_\_\_\_. “The Lives of the Obscure.” *Collected Essays*. Vol.4. London: Chatto & Windus, 1966-7. 116-32.
- \_\_\_\_\_. “The New Biography”(1927). *Collected Essays*. Vol.4. London: Chatto & Windus, 1966-7. 229-35.
- \_\_\_\_\_. *A Passionate Apprentice: The Early Journals*. Ed. Mitchell A. Leaska. London: Hogarth, 1990.

- \_\_\_\_\_. "A Swan and Her Friends." *The Essays of Virginia Woolf. Vol.1.* Ed. Andrew McNiellie. London: Hogarth, 1986. 150-154.
- \_\_\_\_\_. *To the Lighthouse.* London: Hogarth, 1977.
- \_\_\_\_\_. "Two Women: Emily Davis and Lady Augusta Stanley." *Collected Essays. Vol.4.* London: Chatto & Windus, 1966-7. 61-66.
- \_\_\_\_\_. *Virginia Woolf: The Complete Shorter Fiction.* Ed. Susan Dick. London: Triad Grafton Books, 1991.

**Abstract**

## Virginia Woolf and “the Lives of the Obscure”

Heon Joo Sohn

“The Lives of the Obscure” is a short biographical sketch written by Virginia Woolf, in which she tries to conglomerate lives of people not prominent but obscure and hidden. She associates those obscure lives with a new departure in biographical writing. This paper will explore how Woolf developed her idea of the new biography in terms of the lives of the obscure, while the long-held axiom was that the biography is for the great or the prominent.

Being a daughter of Sir Leslie Stephen, the chief editor of *the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a monumental compilation of biographies of the Victorian era, Woolf was highly interested in biography. In a sense, her writing as a whole may be considered as “developing narratives of biography.” Criticizing Victorian biographies for their hero-worshipping attitude and mannerism, Woolf anticipated a new form of biography in her contemporary writers, such as Lytton Strachey and Harold Nicolson. According to her, a biography should successfully combine fact and fiction, in her own words, “granite and rainbow” for the “truthful transmission of personality.” Her emphasis on personality over action in biography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her modernist literary practice. In “Modern Fiction” and “Mr Bennet and Mrs Brown,” Woolf claims that the real life is essentially internal, thus cannot be conveyed through the mere description of external facts, the idea of which is also applicable to biography. Her dilemma was how to transmit personality of the subject without overly depending on fiction. Due to her firm belief that fact and fiction shouldn’t mix, she had difficulties in writing *Roger Fry*, an official biography of her friend Roger Fry.

This paper claims that the lives of the obscure could provide her with a way

to compromise her views of biography and modern fiction beyond the binary composition of fact and fiction. It may open up a new vista of writing which is biographical, fictional and historical at the same time, because by writing a collective biography of the obscure one may adopt one's imagination more freely than in a conventional biography of the great or the prominent.

■ **Key words** : Virginia Woolf, biography, lives of the obscure, prosopography  
(버지니아 울프, 전기문학, 이름없는 사람들의 전기, 집단전기)

논문접수: 2012년 5월 29일

논문심사: 2012년 6월 6일

게재확정: 2012년 6월 10일